

# 번영·화합 위해 함께 '대신제'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18 계룡산 감사



감사 입구의 괴목대신.

"해마다 매월이 절반으로 줄어오. 돈 좀 쓰고 가요. 밥도 못 묵게 생겼어요." 절로 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불쑥 그렇게 말하였다. 길게 상가는 늘어서 있지만, 지나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상가 외에도 노상에서 군밤이나 구운 은행을 파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밥도 못 묵게 생겼다는 말이 허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손님은 없다.

표지석을 세운 것은 4325년(서기1994년) 1월로 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1600년 쯤 되어 보이는 죽은 느티나무가 있다. 신성시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세끼줄로 창칭 감아져 있다. 감사 창건 무렵인 현역 전부터 지금까지 정월 초사흘날 괴목대신제를 지낸다고 한다. 천년 동안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가 없을까? 전설에 따르면 감사 대웅전에 장승이 음력 설날 어느 날부터 새벽 3시 예불시간이면 어김없이 불이 꺼져있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사미승이 지켜보았더니, 자시(子時)경 구척거인이 대웅전으로 들어와 옥동 속 심지를 들어낸 후 등유를 밭에 바르고 절 아래로 내려갔다고 한다. 이를 괴이하게 여긴 사미승이 뒤를 밟았더니, 그 거인이 문득 괴목 앞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스님끼리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스님끼리서 확인하시니 괴목 뿌리가 타고 있어서 불을 끄고, 신성한 나무라 여겨 다들 해정월 초사흘날부터 제를 지내게 시작하였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조종봉 선생과 기허당 박영규 대사가 금산별 작전계획을 이 나무 아래서 모의한 후 출정하였다고 한다. 기허당 대사의 고향이 이곳이다.

의 감(갑)은 십간 중 맨 처음이니, 계룡산의 정기가 귀하게 서린 곳이다. 일주문을 지나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충남감사 흥재회가 썼다는 강당 사액이 눈에 띈다. 대웅전을 지나 표충원으로 향한다.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던 서산대사 휴정, 사명대사 유정, 기허당 영규 대사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 계룡산 감사. 바람이 흘러나오는 땀을 흘린다. 절집을 돌아 나와 다시 속계로 향한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사람들이 사는 곳.' 맨 먼저 만난 것은 상가고, 상가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보자마자 무언가를 사가라고 한다.



상가(중정리).



감사 일주문.

"지금은 서비스로 다 달라요. 그래요. 손님들이 약게 나와요. 부침개 달라, 튀김 달라. 지금은 손님이 다섯이 와도 세 개 밖에 안 사세요. 옛날에는 다 사셨는데." 이원희(66·중정리)씨는 IMF가 닦았을 때에도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고 한다. 28년 전 사하촌을 정리할 때 생긴 가게 들인데,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너도나도 기념품 가게를 했다고 한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주손님이었는데, 장사가 제법 되었다. 지금은 두 집 빼놓고 전부 식당으로 돌아섰는데, 그나마 손님이 푹 끊겼다. "계룡산 밤이라 좋아. 은행하고 밤만 해가지."

김이분(중정리·58)씨는 아직 마수도 못했다고 한다. 밤 구운 것과 은행 구운 것에 곁들여 보리수 열매를 판다. 보리수 열매는 종이 컵 하나 분량에 2000원을 달라고 한다. "옛날에는 여관 같은 게 위에도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은 다 내려왔지요." 이원희씨의 말이다. 인근의 땅은 대부분 감사 소유이다. "토지 개척 때 쓴 밭은 것들은 다 자기 땅이라 하고..."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은 논 한 마지기 차지하지 못하고, 절에 가서 머슴 일이나 했다고 한다. 상가 주인들도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지, 이전부터 마을에 살았던 사람은 드물다. 마을은 오래 되었는데, 마을 안에 스님들의 속가는 없었다.

## 기천문 박사규 문주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 계룡산을 올라갔다와도 비한 방울 안 맞는 사람, 병원에서 포기한 난치병 환자를 수도 없이 치료했다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어디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는 것이냐고 나무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직접 대면한 박사규 문주(사진)는 언론에 이미 알려진 대로 무예를 통해 마음 닦는 공부를 하는 선인(仙人)이었다. 한학을 개조한 조



## 묵언 3년, 20여 년 배워 인정 받아 건강한 심신 통해 깨달음 얻는 것

출한 계룡산산중수련장. 그가 단배공으로 인사를 하였다. 절이 아니라, 출이었다. 곡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다. 그와 함께 있는 몇 시간 동안 평온하고 맑은 기운이 방안 가득했다. 기천문은 우리 전통의 무예였다. 한 예로 고구려의 조의군이 기천을 수련한 부대였다고 한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신라시대부터 문헌상에서 자취를 감춘다. 그런 기천문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1대 문주 대왕선인에 의해서다. 고승들간에만 이름이 알려진 원해선인으로부터 기천문을 전수 받았다는 대왕선인은 어려서부터 설악산에서 무술만을 연마했다.

보이는 자그마한 체구의 사람이었다. 그 정도라면 다섯줄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정식대련이 시작되자마자 뒷목이 서늘해졌다. 생전 보지도 못한 무술에 단번에 고구려적인 것을 무릎 꿇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 처음엔 묵언(黙言) 3년, 난태음이 날아온 주벽이 명이 들기 일주였다. 그렇게 감각부터 익히게 되었다. 20여 년을 배우고 나서 스승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문주님 만나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 셀 수도 없어요. 종교 단체였던 세상이 뒤집혔을 거예요."



찾아온 제자의 말이다. 신문지상에도 자주 오르내린 이야기다. 문주는 다만 빙그레 웃기만 할 뿐이다. 제자에게서 기천문의 기본이자 골미라는 내기신공을 배웠다. 기마와 세와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 잠시 서있기도 힘들다. 기천의 원리는 역근(易筋)에 있다. 관절을 꺾는 자세를 통해 쓰지 않는 근육에 긴장을 줘 힘을 기른다. "저는 기천을 구원의 법으로 받았습시다. 실제 지금 환경이라든가, 각종 재앙이 많고, 새로운 질병이 출현할 조짐이 있잖아요. 의사에게 그 병을 의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과 치료는 창과 방패 같아서 병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기천은 우리 조상들의 행법으로 스스로 단련하여 스스로 건강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나 기천의 법이 병의 치료나 무명의 고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건강한

## 28년전 사하촌 정리하며 상가 형성...대부분 외지인 두 집 빼고 전부 식당...손님 없어 IMF 때보다 힘들어

리나무가 연이어 서 있다. 상수리나무의 상흔을 보면 그 절의 세력을 짐작할 수 있다. 구경회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 절의 권세가 지대한 곳에서는 함부로 상수리나무를 두드리지 못했고, 절의 힘이 미약한 곳에서는 아무나 와서 상수리나무를 두드리 열매를 따갔을 것이라 이야기다. 그 얘기를 듣고부터 절에 오면 상수리나무를 보는 습관이 생겼다. 근데 근데 상흔이 남아있긴 하지만, 감사의 상수리나무는 온전한 편이다. 그만큼 감사가 이 지역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바가 컸다는 것이다. <정각목>에 의하면 이 나라의 새 수도가 설 만한 자리로 계룡산 자락을 잡고 있다. 비기가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 특별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룡산은 범인이 보아도, 한 나라의 수도를 만들 만한 기운을 지니고 있다. 절도 범의 수도이니,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 중 감사



나물 파는 오목림(79) 할머니.

주차장 쪽으로 더 내려 갔더니, 노인 한 분이 몇 가지 나물을 팔고 있다. "도라지, 잔대. 산에서 내가 직접 해온 거요. 삼춧썩 뿌랭기, 약 해묵는 거요." 파는 물건들의 이름을 물으니, 오목림(79·중정리) 할머니는 본인이 직접 채취한 것이라는 말을 강조한다. 그리고 담배 한 대를 꺼내더니, "담배를 공평에다 나눠줬는데, 안 가져갔네. 제 게 아님게 안 가져갔잖아." 하면서 환하게 웃는다. 제 것이 아니므로 안 가져갔다는 말에 나는, 처처불상(處處佛相)이라는 말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나는 얼마나 많이 훔쳤던가. 계룡산에서 내려온 계곡 바람이 갑자기 등걸기를 서늘하게 한다. 공주=이대홍(시인·본지 객원기자)

#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지등 승강 장치(등포 조정 작업)      연등 지등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참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케이블은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을 것을 경고 합니다.

LED 인등

영가주름등      영가접등      영가공단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중등      팔각봉축접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청사초롱

영구위패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